

연중 제24주일

기도서 434 면(A해)

제1독서: 집 회 27,30-28,7

제2독서: 로 마 14,7-9

복 음: 마 태 18,21-35

#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 고인물과 생명수

유 증 환 신부

어느 중대장이 사병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병들이 보는 앞에서 대대장으로 부터 심한 발길질과 욕설을 들었다. 잘못된 사병들은 중대장의 벌과 보복을 가슴 조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중대장은 벌은 커녕 "사병 여러분, 오늘의 잘못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까. 앞으로 근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갔다.

그 중대장은 사병들 때문에 당한 모욕(발길질과 욕설)을 벌 보다 더 강한 용서와 사병들에 대한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중대장이 그 모욕을 사병들을 구타하고 욕설로 폭발하였다면 그도 대대장처럼 똑같이 비인격자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중대장은 사병들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 줌으로써, 그 뒤에 사병들과 상관으로부터 한없는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다. 반대로 대대장은 두고 두고 물지각하고 비인격자라는 욕을 얻어 먹게 되었다.

벌이나 보복은 고인물과 같고, 용서는 흘러내리는 생명수와도 같다. 고인물 주위엔 물고기도 나무들도 살지 못한다. 그러나 흐르는 물 주위엔 갖가지 물고기와 나무들이 살아가며 새들도 보금자리를 짓고 노래부른다. 그리고 고인물 주위엔 생명이 없기에 고독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생명력이 넘쳐서 평화와 행복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고인물이 생명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물길을 터서 아까와 하지 말고 어디로든지 가두어 둔 물을 내보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새 물도 계속 받아 들이고 쉬지 말고 받은 물을 되돌려 줄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고인물 처럼 썩고 병들어 가는 일이 없는지 매일매일 깊이 성찰해 봐야 한다. 쌓아놓은 지식, 재물, 기쁜 소식들, 그리고 고유한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의 빈약한 창고에 가두어 두고 썩히는 일이 없는가? 이 세상은 빈부의 차이, 지식의 차이, 능력의 차이 등 많은 차이 때문에 균형이 깨뜨려 지고 있다. 이 차이들을 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이웃과 아낌없이 나눔에서다. 친척과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나누지 말고 꼭 필요로 하는 보잘 것 없는 소외된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가지도록 하자.

배불룩이가 되어가는 재벌들, 권력가들을 우리는 곧잘 비웃고 욕한다. 그러나 복음 안에 산다는 신자 지성인들, 부호 신자들은 버림받은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위해 무엇을 베풀어 주고 있는가? 내 창고의 차를쇠를 열어, 지식과 재산과 능력이 생명수와 같이 흐르게 하자. 베풀을 아는 자만이 주님께 100배 1000배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수류 주임신부)



## 나눔의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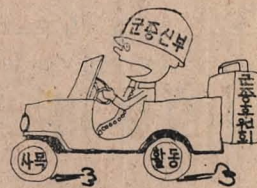
—서로 나누어—

우리 교구 내의 어느 본당은 매주 수요일 「나눔의 날」로 정하고, 나눔이 주는 참 기쁨을 배우며 즐겁게 살고 있다. 그들은 수요일 밤미사에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특별헌금을 한다. 그들의 실정을 보면, 주일에 2백명 가량의 성인(成人)이 미사에 참여하며 12~3만원 정도의 헌금을 봉헌하는 어려운 본당이다. 그런데 수요일에는 40~50명 가량의 성인이 미사에 나와 3~4만원 정도의 특별헌금을 한다. 그들은 지금까지 11주에 걸쳐 40만 7천여원의 헌금과 성미 6말을 모아 십시일반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 아주 적지만, 그들은 해고된 근로자들, 돈이 없어 아픔을 참는 이들과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학생들, 혼자 사는 할머니, 집나간 부모때문에 배고파우는 어린것들을 찾아내어 그들 마음속에 초대했다. 그리고 그들은 미사끝에 한조각의 떡이라도 나누어 먹는다. 금방 찢넌 고무마를 머리에 이고 오릿길을 달려온 사랑을 나누어 먹는 그들은 신앙생활의 기쁨을 진득하게 체험하며 살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초대교회의 한 모습 인지도 모른다.

「이 땅에 빛을」 밝히려는 한국 천주교회의 바람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의미로 우리 교구는 「서로 나누어 이 땅에 빛을」 밝히려고 제시하고 있다. 삶 속에서 서로 나눌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더욱 풍요로워 진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뜻이기도 하다.

우리는 누구라도 이웃에게 나누어 줄 것을 가지고 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도나 힘든 가운데에도 미소를 띄우며 사는 삶, 자신과 이웃을 풍요롭게 하는 나눔의 선물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도 나누어야 한다. 세간들을 둘러보고 이웃에게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 본당 사무실에 맡기자. 뜻있고 좋은 일은 미루지 말자. 우리, 서로 나누자.

## 숲 정 이 산책



기쁨을 가득 채워 드리자



□ 노동 관계법 개정 서명운동 ①

# 노동자의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I)

—노동 조합법—

노동조합법은 헌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하고 (제 1 조),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할 노동조합 (제 3 조)을 누구라도 자유로이 조직할 수도 있고, 이미 조직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제 8 조).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노동자에 대하여서만 유보조항을 두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둘 수 없음에도 다른 규정들과 시행령에 의하여 크게 침해 당하여 헌법의 보장 규정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

1.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노동조합법 제13조와 시행령 제 8 조는 노동조합의 설립을 기업별 노동조합에만 인정하고, 그나마 자유롭게 설립하기 힘들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취업노동자에게만 노조결성권을 인정함으로써 헌법 제31조에 크게 위배되고 있다.

노동자의 단결권이 실제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노동자들의 필요와 기업의 형태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단일기업이 1천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적절할 것이고, 청계천 평화시장의 봉제공장처럼 작은 영세 중소기업들이 집합되어 있는 곳에서는 “지역별 노동조합”이 자유스러운 것이고, 용접공, 전기공, 이발사, 미용사, 목공등 숙련기능공들에게는 “직종별 노동조합”이 적절한 것이며 섬유, 신발, 전자, 제약, 식품, 철도, 건설등 대규모 산업체에서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좋을 것이다.

현행 노동법으로 바뀌기 이전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산업별 노동조합과 지역별 노동조합 등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후 기업단위로만 국한시켜 실제로 노동조합수와 노조가입 노동자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노동자의 단결권이 제약받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 4 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는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자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다. 실업상태에 있거나 해고된 노동자들도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업자가 많은 사회에서 이들을 법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 전주교구 성지 ⑧

# 중바위산 (치명자산)

교회에서는 성지라고 부르는 곳이 많다. 그러나 정작 성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치명장이나 또는 치명자가 묻힌 곳을 말하고 있다.

이곳은 순교자의 영광이 항상 새롭게 열매 맺기를 바라는 신앙인들에게 뜻깊은 곳이며 특히 동정부부 유요한과 이 루갈다와 그 가족이 묻혀, 그 산 이름이 치명자산으로 바뀌어 더 널리 알려져 있다. 동정부부의 순결한 신심과 매운 용덕은, 인간의 본능을 초월하고 생명의 참된 가치와 더 높은 세계를 향해 힘껏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요람이 되고 있다.

1801년 박해가 누그러지자 유 항검의 노복과 교우들이 몰살된 유 항검의 가족 시체들을 형장에서 모아다가, 유 항검의 소유인 고향땅 황무지에 초라하게 묻었었다. 그후 전동성당 윤 신부는 제남리 공소를 방문할 적마다 이 묘소를 참배하였다. 그러던 중 1912년경 일본사람 목장이란 자가 이곳을 개발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갈 곳이 없게 되자 오늘의 치명자산을 마련하여 1912년 봉재 때 지금의 장소로 옮겼다고 한다. 묘소를 발굴하고 보니 묘 안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시신은 거의 부식되었으며 사기 접시에 각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묘표가 나왔다. 이곳에는 이 루갈다와 그의 남편 유 요한, 시동생 문석, 시어머니 신희, 작은 시어머니 이 육희, 사촌 시동생 중성 등 여섯 식구가 묻혀있다.

이 묘소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조금스러운 기이한 현상의 일화를 낳으면서 사시사철 참배객들의 존경을 받고 있으며 시복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 또한 치명자산 밑에는 전주교회의 설립자인 윤 보두네 신부를 위시해서 전주교구의 기초를 다지는데 수난과 시련을 겪은 신부님들의 묘가 묘지군을 이루고 있다.

동정부부의 가족 묘지가 해발 300미터의 높이에 있는 것은, 그들의 고매한 덕성과 심오한 신앙의 깊이를 흠모하는 애정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의 표현이다. 그들은 그 높은 곳에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주요 신앙의 수호자처럼 존경 받고 있다. 이 묘소를 오르는 사람들은 흐르는 맑과 가쁜 숨소리를 통하여, 그들이 남긴 숭고한 신앙의 만분의 일이나마 체험하면서, 안일무사하고 사치스러워진 자신의 신앙을 반성하고 있다.

## 84년 성령쇄신 전국대회 및 특별세미나

### 1. 특별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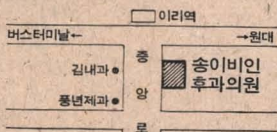
일 시 : 9월 30일 - 10월 2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장 소 : 서강 대학교 체육관 마리아홀  
회 비 : 3,000원


### 2. 전국대회

일 시 : 10월 3일  
장 소 : 서울 동성중·고등학교 운동장  
회 비 : 없음

## 전문의\*이비인후과. 안과 송이비인후과의원

이리시 중앙동 1가 16-12  
TEL. 52-5250  
원장 송기준 (레오파노)  
유은희 (아네스)






### 송명동피부과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비뇨기과, 병리검사

원장: 전문의 최창기(루카)  
부설: 임상병리 검사실  
영상병리사 임윤자

☎ 4719, 0616 (원장실)  
(구역전오거리, 팔달로동편 2층)





이 땅에 빛을



# 한국 성인 탄생 경축대회

“서로 나누어 이 땅에 빛을”

—9월 23일 오전 10시. 전주 해성학교 교정

한국천주교외  
200주년기념

☆행사일정 및 행사개요

전야제: 9월 22일(토) 오후 8시, 전주 중앙성당  
제1부—참 신앙의 길, 제2부—영화상영 “소명”

본행사: 9월 23일(일) 오전 10시, 전주 해성학교 교정(금정이)  
제1부—빛나는 조상의 얼과 우리의 다짐(성인 유해 행렬, 성인들의 생애,  
나의 신앙 고백), 제2부—성인 탄생 경축 대미사, 제3부—바자회

☆참가대상: 중학생 이상 교구신자·예비신자·타교구 신자

☆주 최: 천주교 전주교구

☆주 관: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 \*바자회 안내

1) 가난한 이웃돕기 바자회: 가난한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각 가정에서 사용하던 헌옷, 가구, 가전제품, 그릇, 신발 등을 손질하여 내놓고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본당 사무실에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잘 손질하여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2) 교우 상인 상품 전시회: 교우 상인들이 상품을 전시하고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참가하실 교우 상인께서는 본당 사무장님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젊은 여성들을 위한 주말 목상회

교구 교육국에서는 삶의 자리에서 잠깐 멈추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회회를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 제: 제가 여기 왔나이다.

일 시: 9월 29일(토) 오후 4시~30일(일)

장 소: 가톨릭 센터 3층(문의-☎ 0041~3 교육국)

대 상: 수도 성소에 관심이 있는 여성(여고 1년이상, 여대생, 직장인, 일반여성)

회 비: 4천원 지참물: 미사도구, 세면도구, 신구약서

### □ 전주교구 순교성지 리플렛 제작

교구 홍보국에서는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교구 내의 성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전주교구 순교성지 리플렛을 제작하여 전국 각 본당과 교회기관에 배포하였다.

천주교와 전주지방, 전주교구의 성인들, 성지 안내도 등 순교성지 사진과 함께 교구 내의 성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리플렛은 성지개발 사업을 앞에 두고 있는 전주교구로서 좋은 홍보용 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리플렛의 원고를 작성해 주신 김진소 신부님(호남교회사 연구소장)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 □ 전동성당 미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방 문화제로 선정되어 있는 전동성당이 2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성당 내부 및 주위 조경사업을 실시키로 전동 전신자가 결정을 했다 한다. 사업내용은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고 정문을 차가 출입하기 편리하게 이전하며 성당 앞마당과 옆은 잔디밭 및 정원으로 설계하여 신자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든다 한다. 성당 내부의 제대의 등근 창문은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하며 유지된 앞마당과 화단도 녹음으로 우거진 휴식 공간으로 만든다 한다. 앞으로 전동 신자들의 노고에 따라 전동성당이 명실공히 아름다운 성당이 될 날도 머지 않을 것이다.

## 요심이(580) 김병오



### 교 사 초 빙

1. 과목: 가정(1명)
2. 구비서류(각 1통)
  - ①자필이력서
  - ②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 ③대학교 4학년 성적증명서
3. 서류 제출마감  
1984년 9월 20일(목요일)
4. 제출처  
전주 성심여자중학교 서무과

학교 해성학원  
법인  
전주 성심 여자 중학교

신속배달 설비시설

### 한국 가스 상사

☎ 3-1457-72-0612

김성두(토마스)

이미자(안젤라)

### 천사의 집

(마출·빌립·반환)  
웨딩드레스·연주복·약  
혼복·신부화장·부케·  
비디오 촬영  
(성물 선물드림)  
·전동성당에서 행복 예식장  
중간  
대표: 유 가타리다

### 마기환 안과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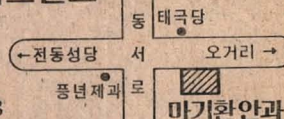
부설: 새한콘택트렌즈

원장  
안과전문의 마기환

한 남.희(비비시타)

TEL. 75-2203

(시집가는날. 태극당건너편 불새대방 2층)







- ☆ **축! 건진, 사제관 축성 및 강당 증축 기공식**: 삼례본당 (16일)
1. **9월 피미씨움 회의**: 16일 오후 2시, 장소-전동성당, 대상-각 꾸리아 간부 및 직속 Pr. 간부 전원
  2. **옥봉성당 기공식**: 16일 오후 2시30분 (미사·기공식), 장소-옥구군 옥구읍 삼거리 옥봉교회 앞 주례-박정일 주교님
  3. **축! 성 이 명서 모여 성역화 기공식**: 20일 오후 2시30분, 치명자산 기슭
  4. **여성 제17차 무르실로**: 29일 오후 5시부터 10월 2일까지, 수강 희망자는 본당신부님과 상의 바람
  5. **군산교도소 영세식**: 26일 오후 2시 (영세자 12명)
  6. **군산지구 베소리 성서 시간변경**: 낮반-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밤반-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7. **사랑 나눔의 상품 전시 판매**: 15일~24일, 장소-군산시 장미동 직행버스 정류장 앞
- **축! 영명**: 성 마태오 (20일) - 황 인규·김 진석·유 중환 신부님

제 1 지구 각 본당 소식 ①

(중양)

주임 신부 윤 철 준  
사도 신부 나 춘 성  
보좌 신부 김 인 협  
회장 사도 김 인 협

- 전화 ①711~3:
1. **축! 영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 **꾸리아**: 금일 오후 2시
  3. **돼지저금통**: 성당으로 물고 오세요 (교적번호 기입)
  4. **병자봉성체**: 18일, 사무실 신청
  5. **고등학교 성지순례**: 미리내·절두산-금일
- **지난주 봉헌금**: 934,515원 **교무금**: 857,000원

(노송동)

주임 신부 김 봉 대  
사도 신부 이 성 우  
보좌 신부 이 성 우  
회장 사도 이 흥 재

1. **정성과 희생으로 새성전 건립하자**: 최경자·이중선-각 20만원, 김인근-108,000원, 장기수-93,000원, 함인순·황정민·박준성·김진옥·문순완·최관걸·김규천·최인화·이우례·김형인·이강영-각 10만원 소계-1,701,000원, 누계-103,312,000원
  2.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각담 간부님들 참석
  3. **혈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공소회장단 회의**: 18일 오후 3시, 왕정리 공소에서
  5. **교무금 납부의날**: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매일 분납하여 본당 운영에 협조합시다
  6. **공소 순회미사**: 22일 저녁 8시, 다리리공소에서
  7. **차주의 전례담당**: 제1조 빠짐없이 나오세요
- **지난주 봉헌금**: 367,910원 **교무금**: 412,000원  
**축석합동 미사예율**: 914,080원

(덕진)

주임 신부 김 봉 희  
사도 신부 김 윤 안  
보좌 신부 김 윤 안  
회장 사도 김 윤 안

1. **오늘의 모임**: 반성회·성모회
  2. **선교위원회·만나회**: 19일 저녁 8시
  3. **한국 성인 (103) 대축일**: 20일
  4. **한국 성인 탄생 교구 경축대회**: 23일 오전 10시, 순정이 (해성학교)에서  
①모두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본당에서는 당일 새벽, 저녁미사만 있음)  
②형제애 나눔을 위해 헌옷, 가구, 가전제품, 신발류 등 손질해서 사무실에 접수 바람 (30일까지)
  5. **새 영세자**: (82년 성탄~84년 성모승천까지 영세자) 성지순례-9월 30일 (23일까지 신청 마감)
  6. **혼인성사 안내**  
①당사자와 부모님은 3주전에 본당신부 면접 바람  
②지참서류-영세증명서 (신자), 호적등본 (비신자)  
③주일에는 본당에서 혼인미사 접전 않습니다
  7. **정원 보수작업**: 오늘 미사후 (청년, 학생 협력 바람)
  8. **금주 본당청소**: 진복회, 성신부녀회
- **지난주 봉헌금**: 499,190원 **교무금**: 314,000원

(복자)

주임 신부 권 영 균  
사도 신부 김 성 원  
보좌 신부 김 성 원  
회장 사도 김 성 원

1. **시성 경축 교구대회**: 23일 (다음주일) 오전 10시, 해성학교, 전신자 참석 바람, 본당에는 저녁미사만 있음. 전야제 행사-22일 저녁 8시, 중앙성당
2. **의류·가구·가전제품·신발류 접수** (본당 사무실): 접수기간-16일~30일
3. **영세식**: 22일 오후 2시, 대부모와 같이 준비 바람
4. **성지순례**: 25일 오전 7시30분 출발, 장소-솔피·해미, 회피-5천원, 도시락 지참. 선착순 접수 마감, 주최-부녀회
5. **금주 성당청소**: 월-사랑하오신 어머니, 토-순결하신 어머니

- 차주 성당청소: 월-다위의 탑, 토-셋별
6. **금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이갑진 ②송영자  
**차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조성호 ②정운주
- **지난주 봉헌금**: 142,280원 **교무금**: 469,300원  
**축석합동 위령미사**: 138세대 566,500원

(서학중)

주임 신부 김 동 준  
사도 신부 김 낙 균  
보좌 신부 김 낙 균  
회장 사도 김 낙 균

1. **모임**: 성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꾸리아-오늘 오후 2시, 울트레아-20일 오후 7시30분
  2. **성인탄생 경축대회**: 23일 오전 10시, 해성학교에서 많은 참여 바람, 본당 10시미사 없음. 전야제가 22일 오후 8시부터 중앙성당에서 있습니다
  3. **불우이웃돕기**: 가정에서 사용하던 헌옷, 가구, 가전제품 등을 사무실에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영세식**: 29일 오후 3시에 예비자 영세식이 있습니다
  5. **유아세례 및 병자방문**: 20일 10시미사 후에 있습니다
  6. **차주전례**: 해설-김낙환·김은경, 독서-①김낙균 ②김광수, 신자들의 기도-치명자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345,510원 **교무금**: 131,000원

(순정이)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신부 김 수 곽  
보좌 신부 김 수 곽  
회장 사도 김 수 곽

1. **주일학교**: 교리-1시30분, 미사-3시
  2. **돈보스코회**: 뜻있는 젊은이들 환영 (20~30세 남·여)
  3. **금년 영세자 모임**: 18일 오후 7시30분
  4. **7월 기도**: 오늘부터 22일까지 (매 미사후)
  5. **한국 성인 탄생 경축대회**: 23일 오전 10시 당일 본당미사는 저녁 7시에만 있음
  6. **유아영세식**: 10월 13일 오후 2시  
**성인영세식**: 10월 20일 오후 3시
  7. **금주전례**: 해설-이기호, 독서-기도-이귀례·신덕순  
**차주전례**: 해설-이기호, 독서-기도-이철수·이순주
- **지난주 봉헌금**: 208,011원 **교무금**: 342,800원

(전동)

주임 신부 김 치 삼  
사도 신부 정 양 희  
보좌 신부 정 양 희  
회장 사도 정 양 희

1. **성화회**: 공식미사 후
  2. **피미씨움**: 오늘 오후 2시
  3. **섬마리아 꾸리아**: 오늘 오후 4시
  4. **업종별 신자명부 작성증**: 사무실에 신고 바람
  5. **자모회 총회 임원선출**: 회장-이귀남, 부회장-이삼재, 총무-김현자, 회계-이귀임
  6. **성령기도회**: 매주<목> 저녁미사 후
  7. **영세식**: 20일 저녁미사 후, 대부·모 필히 참석 바람
  8.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이주영, 독서-①최병례 ②최정식  
공식미사: 해설-이영희, 독서-①이영태 ②고수창  
저녁미사: 해설-최원일, 독서-①최종만 ②이훈
  9. **주일학교 자모회 월례회**: 18일 오전 10시
- **지난주 봉헌금**: 941,520원 **교무금**: 498,500원

※ 200주년 기념사업: ①정문 ②사무실 및 화장실 ③성당유리 ④주일학교 수리 ⑤성당 조경사업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으로 수리하기 위해 협조 바람

(호자동)

주임 신부 박 증 신  
사도 신부 이 교 성  
보좌 신부 이 교 성  
회장 사도 이 교 성

1. **유아세례**: 30일 10시
  2. **주일학교**: 토요일 오후 4시까지 보내 주세요
  3. **한국 성인 경축대회 날**: 본당미사-오전 6시
  4. **사도회 임시 상임위원회의**: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271,440원 **교무금**: 430,000원